

kotra **베트남 비즈니스** NEWS 4월

발행일 : 2026년 3월 31일

KOTRA VIETNAM BUSINESS NEWS



해외시장뉴스· 베트남 월간 뉴스·프로젝트 동향	2
미국 통상정책 주요 동향 관련 해외시장뉴스	9
[팀코리아협의회 동정] 2026년도 제1차 K-이니셔티브 팀코리아 협의회 회의 개최.....	10
[기업탐방] 대롱비나.....강대엽 법인장	11
[법률] 베트남 법인 자본금 납입관련 실무상 이슈들.....전현우 변호사	14
[회계] 베트남 세법 및 세무행정 25탄.....엄진용 회계사	16
[통관] 베트남 수출용 원자재 수입세 면제 제도 및 위탁가공 시 유의사항.... 이여람 관세사	19
[이달의 유망성 투자 정보] 안장성	22
[이달의 보고서] 2026 외국투자자를 위한 조세가이드	35
[이달의 보고서] 2026 외국투자자를 위한 노사가이드.....	36
[이달의 전시회] 2026 베트남 하노이 국제 무역 전시회	37
베트남 및 아세안지역 주요 경제 지표	41
사업안내 및 공지사항.....	42



문의처

편집 및 제작: KOTRA 베트남 비즈니스 협력 센터

Phone: +84-24-3946-0511 / Email: hanjisoo@kotra.or.kr <저작권자 KOT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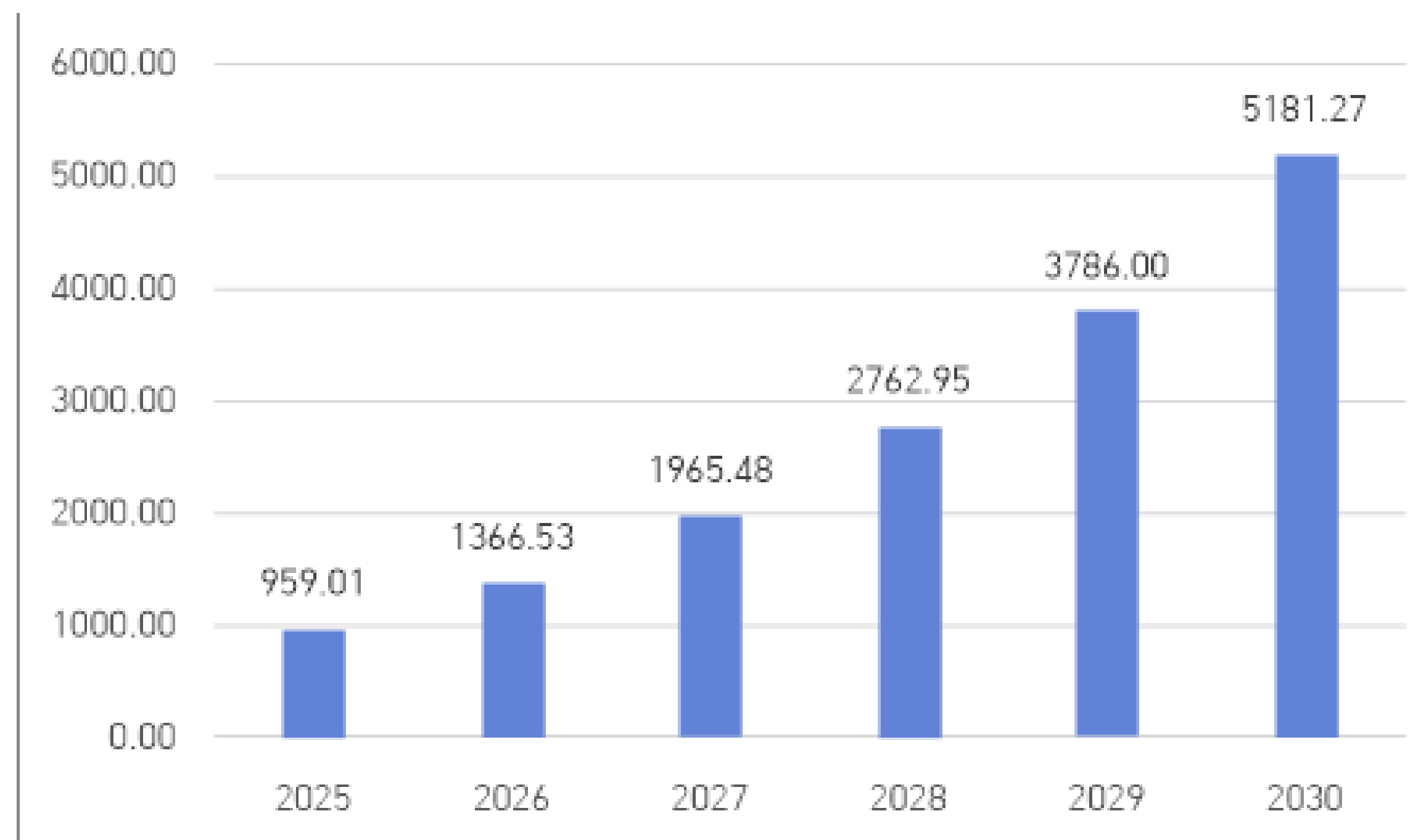
베트남 포괄적 AI법 발효...오프쇼어링 기지에서 AI 전략 거점으로

- 베트남, 동남아시아 최초로 포괄적 AI법 발효
- 디지털 신뢰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
- AI 규제와 데이터센터·반도체·전력 인프라 전략이 맞물리며 상위 가치사슬 진입 본격화

최근 베트남은 디지털 경제 성장과 높은 AI 수용성, 정부의 제도 준비를 바탕으로 동남아시아의 IT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Oxford Insights에 따르면, 베트남은 2025년 Government AI Readiness Index*에서 195개국 중 45위를 기록하며 글로벌 AI 준비도 측면에서 상위권에 포함됐다. 또한, 2025년 베트남 AI 시장은 약 9억 USD 규모로 평가되며, 2030년에는 약 51억 USD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처럼 AI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베트남 정부가 AI를 법률 체계 안에 편입한 이유는 무엇일까?

* 정책, 인프라, 인적 자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균 점수를 내 순위 부여

<베트남 AI 시장 규모 및 전망 (2025-2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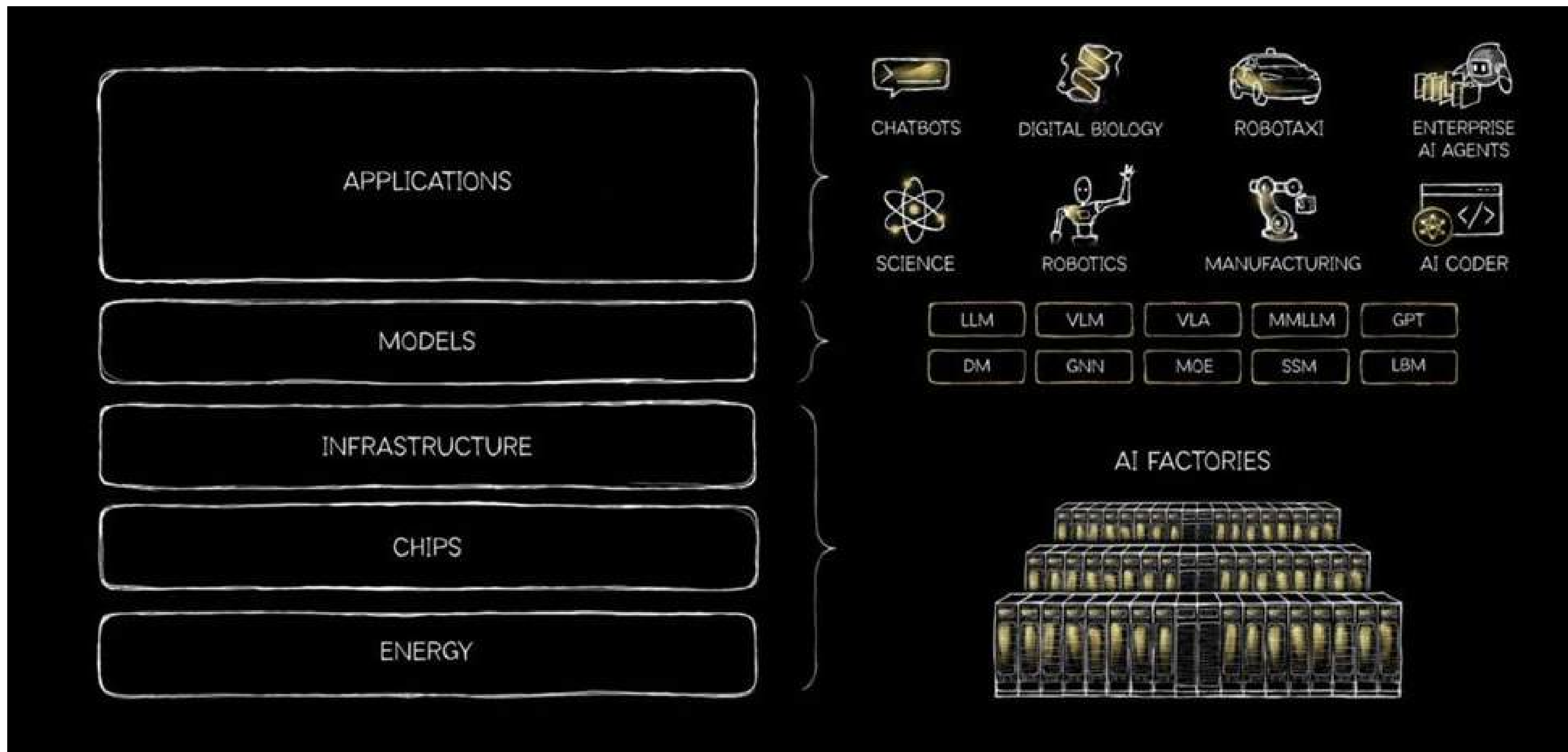


주: 2025년은 추산치이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는 전망치임
[자료: Statista]

AI법 발효 배경: 국가 경쟁력과 디지털 신뢰도의 중요성

글로벌 AI 산업을 주도하는 엔비디아는 최근 자사 블로그를 통해, '인공지능은 이제 개별 소프트웨어에 머무르지 않고, 전력망이나 데이터센터와 같은 '국가 필수 인프라(Essential Infrastructure)'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로 AI 생태계를 ①에너지, ②칩, ③인프라, ④모델, ⑤애플리케이션의 5계층 구조로 정의하며, 일상에서 접하는 챗봇, 생성형 AI 등의 상위 계층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 기저에 막대한 전력과 고성능 반도체 그리고 대규모 데이터센터 등의 물리적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I 생태계의 5계층과 상·하위 계층별 예시>



[자료: 엔비디아 공식 블로그, 'AI is a 5-layer cake']

이러한 첨단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베트남은 2026년 3월 1일부로 동남아시아 최초의 포괄적 AI법(Law No. 134/2025/QH15)을 발효하며, 단순한 규제가 아닌 △국가 산업 경쟁력 제고 △디지털 주권 확보 △사회적 신뢰 회복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의 주변국이 ASEAN의 AI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으나, 정식 법률을 발효한 것은 베트남이 최초).

베트남 정부가 AI 규범을 발 빠르게 마련한 배경에는 급격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자리 잡고 있다. 최근 베트남 정보통신부(MIC)와公安부(MPS)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약 11개월간 베트남 온라인 사기 피해액은 약 6조 베트남 동(약 3400억 원)을 상회하며, 딥페이크 등 AI 기반 사기 수법 확산도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AI법은 기술 활용에 따른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체계화된 규제 환경을 통해 글로벌 기업의 투자(FDI)를 안정적으로 유치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해석될 수 있다.

AI법의 기본 구조와 핵심 조항

그렇다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체계적인 규제 환경'은 어떻게 조성될까. 그 핵심 요소는 AI를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닌,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관리하는 '위험 기반 분류(Risk-Based Classification)' 체계에 있다. 즉,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포괄적 규제를 지양하고,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 수준에 따라 관리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제9조에 따르면 △인간의 생명·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군 분야 △혼란을 일으키는 중위험군 분야 △이들을 제외한 저위험 분야의 법적 의무를 엄격히 구분해, 고위험군 분야에 대한 통제 의무와 그 외 분야의 혁신 활동 보장을 동시에 충족하는 유연성을 갖췄다.

이러한 차등적 위험 관리 구조 속에서, 시장 진입 전략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3가지 핵심 조항이 있다. 바로 공급자 역외 적용과 시장 적합성 평가 그리고 샌드박스 도입이다.

1) 공급자 역외 적용

가장 눈에겨보아야 할 점은 공급자에 대한 법적 관할권(Jurisdiction)의 실질적 확장이다. 제2조(적용 대상)와 제14조 e항에 따라, 구글, 메타 등 글로벌 기업이 베트남 내에 물리적인 서버나 법인을 두지 않더라도 베트남에서 고위험 AI 시스템을 제공하는 경우, 베트남 내에 법적 연락 창구 또는 공인된 법정 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을 지정해야 한다. 이는 글로벌 기업의 규제 우회를 차단하고, 베트남의 데이터 및 디지털 주권 확보를 위한 역외 적용(Extraterritoriality) 장치로 평가된다.

2) 고위험군 분야의 사전 시장 적합성 평가 의무화

제9조(인공지능 시스템의 위험 등급 분류) 및 제13조(고위험군 시스템의 적합성 평가)에 따라, 금융(핀테크), 의료 등 개인의 생명, 안전, 재산 등과 직결되는 고위험군(High-Risk) AI 모델 및 애플리케이션 도입 기업은 서비스 출시 전 정부 기관의 사전 검증 및 적합성 평가(Conformity Assessment)를 이행해야 한다. 이는 사후 규제가 아닌, 사전 검토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기술의 작동 원리와 데이터 편향성 등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 국가가 직접 관리·감독하겠다는 것이다.

3) 유망 기술 규제 샌드박스 도입

앞서 법적 관할권 확장 및 사전 적합성 평가 의무화 등 규제 장치를 강화한 것과 동시에, 이번 법은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장치도 함께 담았다. 제20조(인공지능 생태계 및 시장 발전)에 따르면, AI 분야의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해 각종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으며, 데이터·인프라·시험 환경 접근 등 지원 방향을 포함한다. 또한 제21조(인공지능 테스트 메커니즘)에는 통제된 환경 내에서 안정성 및 기술 적합성 등을 실증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 도입을 명시했다. 이는 베트남이 AI를 단순 통제 대상이 아니라,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조항들이 3월 1일부로 발효됨에 따라,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들은 단순한 시장 진입 여부나 투자 타당성 검토를 넘어, 내부 법적 규제 준수 체계 및 매뉴얼(Compliance framework)을 우선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AI 생성 음성 및 이미지 등에 대한 표시, 라벨링 의무, 이용자 고지 의무 등이 함께 적용되는 만큼, 서비스 구조와 운영 절차 전반을 사전에 재정비해야 한다.

AI법과 베트남 국가 전략 사업

이처럼 베트남 AI법은 표면적으로는 위험 통제를 위한 규제 장치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전력망, 데이터센터,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사업을 육성하려는 거시적 산업 인프라 전략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엔비디아의 AI 5계층 구조와 같이, AI 서비스(상위 계층) 확산은 단순한 소프트웨어 고도화로만 가능하지 않다. 이는 대규모 연산 자원과 데이터 저장·처리 기반, 안정적인 전력망 구축(하위 계층) 등이 동시에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AI법은 역설적으로 단순한 규제 장치를 넘어, 산업 인프라 육성 전략을 완성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된다.

그간 베트남 정부는 AI법과 별개로 전력,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물리적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 정비를 병행해 왔다. 먼저 2023년 통신법 개정(Law 24/2023/QH15)을 통해 2025년 1월 1일부로 데이터센터 및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도권에 편입됐다. 해당 부문에는 100% 외국인 투자 허용 기반이 마련됐고, 이는 글로벌 인프라 사업자의 베트남 진입 여건을 개선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반도체 산업 역시 같은 흐름 위에 놓여 있다. 베트남 정부는 2024년 9월 '2030 베트남 반도체 산업 발전 국가 전략(결정문 1018/QD-TTg)'을 공표하고, 반도체 설계, 패키징, 테스트를 포함한 반도체 가치사슬 전반에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즉, AI법이 활용 기준과 규제 원칙을 제시한다면, 반도체 전략은 그 산업 기반을 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능을 한다.

물론 전력·에너지인프라 부문에서도 제도적 진전이 있다. 데이터센터와 AI 연산 수요 확대는 곧 대규모 전력 수요 증가로 연결되므로, 안정적인 전력 조달 체계는 AI 산업 육성의 전제 조건에 해당한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제8차 국가전력개발계획(PDP8)을 기반으로 발전 용량 확대와 전력망 확충을 추진하고, 2025년 3월 3일부로 시행령(57/2025/ND-CP)을 발효해 직접전력구매계약(DPPA)* 제도를 재정비했다. 이는 대규모 전력 소비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직접 전력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특히 재생에너지 조달과 탄소 감축 목표를 함께 고려하는 글로벌 기업의 베트남 내 AI 인프라 투자 판단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 기존 시행령(Decree 80/2024/ND-CP)을 대체해 직접전력거래 메커니즘을 재정비한 제도

이러한 제도적 정비는 현재 글로벌 기업의 투자 및 연구개발(R&D) 움직임과도 맞물리고 있다. 로이터(Reuters)에 따르면, 베트남 IT기업 FPT는 엔비디아(NVIDIA) 기술을 활용한 2억 달러 규모의 AI 팩토리(데이터센터 기반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퀄컴(Qualcomm)** 역시 베트남에 AI 연구개발센터를 출범시키며, 생성형 및 에이전트 기반 AI, 스마트폰·자동차·IoT 등 응용 분야를 포괄하는 연구개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 로이터, 2024년 12월 5일, <Nvidia to build AI research, data centres in Vietnam with govt>

** 로이터, 2025년 6월 11일, <Qualcomm launches AI R&D centre in Vietnam>

AI법 발효에 대한 기업 인터뷰

현지 기업들은 이번 법안의 방향성 자체에는 주목하면서도, 실제 산업 영향은 하위 법령 정비 이후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중에서도 베트남의 대표 IT기업으로 손꼽히는 FPT의 한 관계자는 호치민무역관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아직 법률 자체만으로는 산업 영향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현재 베트남 과학기술부가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어, AI 관련 기업들이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여전히 명확히 규정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며 관련 쟁점은 다른 법률 및 하위 규정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베트남 소프트웨어 협회(VINASA)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안이 베트남의 기존 법체계와 전반적으로 정합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호치민무역관과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AI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측면에서는 기업에 유익한 법률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규제 준수에 따른 비용적 측면에서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베트남 AI 산업 주요 현지 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명	로고	개요
FPT AI FACTORY		베트남 대표 IT 기업 FPT는 최근 FPT AI 팩토리를 통해 GPU 클라우드, 모델 학습, 배포 환경 등을 아우르는 AI 인프라 사업을 강화하고 있음
VNG (Zalo AI)		베트남 대표 테크 기업이며, 메신저앱인 Zalo를 기반으로 AI 역량을 확대하고 있음. 대규모 AI 인프라와 베트남어 특화 LLM을 구축함
VNPT AI		VNPT 그룹의 AI 사업 축을 담당하며, eKYC, OCR, 얼굴인식, 음성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공 및 금융 AI 솔루션 대표 기업임
AI Hay		베트남어 기반 생성형 AI 서비스 스타트업. 학습 보조, 수학 및 작문 등을 제공하는 에이전트 AI 성격의 서비스를 지원. 2025년 1천만 USD 규모의 투자를 유치함 (시리즈 A)

[자료: 기업별 공식 홈페이지]

AI법 발효의 시사점

이번 포괄적 AI법 발효는 베트남이 AI를 단순 규제 대상이 아닌 '국가 전략 산업'으로 격상시켰음을 시사한다. 베트남 정부는 AI 활용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통제하는 동시에, 통신법 개방과 반도체 육성 전략, 직접전력구매(DPPA) 제도 등 하위 인프라 기반을 병행하여 정비하고 있다. 이는 베트남이 과거 단순 하청 및 오프쇼어링(Off-shoring) 기지 역할에서 벗어나, AI 연구개발과 데이터 인프라, 고부가가치 응용 서비스가 결합된 '상위 가치사슬(Value Chain)'로 진입하려는 전략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베트남 진출 또는 투자를 검토한다면 단순한 시장 수요 분석을 넘어, 보다 입체적인 진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 정비를 필두로 데이터 거버넌스, 현지 법정 대리인 확보, 알고리즘 기술 문서화, 나아가 전력 조달 전략까지 포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지 규제상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여지가 있는 서비스의 경우, 사전 적합성 평가 통과 여부가 사업 성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론적으로 베트남 AI법의 핵심은 제도적 명확성과 물리적 인프라 확충이 결합된 '통합적 산업 생태계로의 구조적 전환'에 있다.

자료: Oxford Insights, Statista, Reuters, 엔비디아(NVIDIA) 공식 블로그, FPT AI FACTORY 등 기업별 홈페이지, VietNam News, 베트남 정보통신부(MIC), 공안부(MPS), KOTRA 호치민무역관 종합



▶ 볼리캄사이-베트남 연결 도로 개통

라오스 볼리캄사이(Bolikhamxay) 주 사이참폰(Xaychamphon) 지역 중심부와 라오스-베트남 국경의 남온(Nam On) 국경 검문소를 연결하는 총 35km 길이의 신규 도로가 3월 12일 공식 개통됨.

라오스 총리 손싸이 시판돈(Sonexay Siphandone)은 사이참폰 지역에서 열린 개통식에 라오스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함. 아스팔트 콘크리트와 더블 비투미너스 표면 처리(Double-Bituminous Surface Treatment) 방식으로 건설된 이번 도로는 국경 간 교통을 개선하고 접경 지역의 사회·경제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해당 도로에는 교량 2개가 포함되어 있으며, 총 건설 비용은 약 2,600억 킵(약 1,200만 달러)임. 사업 자금은 베트남-라오스 전력투자개발 주식회사(Viet-Lao Power Investment and Development Joint Stock Company)가 지원했으며, 해당 기업은 사이참폰 지역에서 트루옹선 풍력발전 프로젝트(Truong Son wind power project)에도 투자하고 있음.

베트남 대표단은 주라오스 베트남 대사 응우옌 민 탐(Nguyen Minh Tam)이 이끌었으며, 응에안(Nghe An) 성의 고위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함.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도로 개통이 라오스와 베트남 간 무역, 관광 및 교통 연결성을 강화하고 지역 통합과 지역사회 발전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손싸이 시판돈 총리는 향후 상호 관심 분야의 인프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양국 정부와 국민 간 오랜 우호 관계와 협력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함.

[비엔티안 타임즈 03.16]

1. Project Title

Dien Vong Water Treatment Plant

* 발주처 담당자 정보 및 기타 세부사항 별도 문의

2. 프로젝트 세부정보

Project Title	Dien Vong Water Treatment Plant – Packages: Supplying equipment and constructing facilities to increase the capacity of the Dien Vong Water Treatment Plant to 90,000 m3/day		
Host of Project	Quang Ninh Clean Water Joint Stock Company		
Project Status	2022-2028	Total Cost [USD]	5.6 million
Location of the Project	Quang Hanh Ward, Quang Ninh Province		
Funding Source	Owner’s Equity and Loan		
Ordering Method	ICB / NCB / Negotiated contract / Others		
Type of bid	Investor selection () / F/S () / PMC () / Basic Design () / Detail Engineering () / FEED () / Procurement (√)/ EPC () / Construction (√) / Construction supervision (√) / Commissioning (√) / O&M (√) / Others(description)		
Bid Deadline	Q3-Q4/2026	Bidder Selection Method	QCBS
Project Profile (Background and Summary of the Project)	Tentative Progr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ril 2022: Appraisal of basic design – F/S report, Approval of investment project. • December 2025: Appraisal of revised F/S Report, approval of project adjustments. • Q1/2026: Appraisal of detailed design • Q3-Q4/2026: Bidding • Q42026-2027: Construction • 2028: Expected COD 		
Possibility of the Korean Company to Enter the Tender	Korean partners already have good reputation in environment industry so there would be higher chance for Korean construction/procurement packages contractors to participate in the project.		

▶ [미국 경제통상리포트(US26-07)] 2026 워싱턴 국제무역회의 주요내용 및 전망

- ◆ 미국 통상정책은 관세 중심에서 통상법·산업·공급망이 결합된 경제안보형 집행 체계로 전환
- ◆ 핵심광물, USMCA, 제조업 4.0이 미국 제조 경쟁력과 공급망 재편의 핵심 축으로 부상
- ◆ 디지털·AI 통상은 시장 개방을 넘어 데이터 규범과 동맹국 간 공통 기준 형성 논의로 확대

[주요내용]: [다운로드\(클릭\)](#)

▶ [미국 경제통상리포트(US26-08)] 미국 2025년 수출입 동향 분석 및 향후 전망

- ◆ 미국의 2025년 상품·서비스 적자, 전년 대비 0.2% 감소
- ◆ 대한 상품 무역적자 16.9% ↑ (수출 4.7% ↓ / 수입 5.1% ↑)
- ◆ 한국·대만·베트남과 무역적자 확대, 중국·EU와 무역적자 감소
- ◆ 전문가들은 관세 정책 효과에 대해 의문 제기

[주요내용]: [다운로드\(클릭\)](#)

▶ [미국 경제통상리포트(US26-09)] 美, 과잉공급·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 ◆ USTR, 제조업 구조적 과잉공급 및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규제 관련 301조 조사 착수
- ◆ 과잉공급은 중국·EU·한국 등 16개 경제권, 강제노동은 한국 포함 60개 경제권 대상
- ◆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수입제한 등 후속 조치가 검토되며 대미 통상 불확실성 심화

[주요내용]: [다운로드\(클릭\)](#)



2026년도 제1차 K-이니셔티브 팀코리아 협의체 회의 개최



<최영삼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

3월 11일(수),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은 '2026년도 제1차 K-이니셔티브 팀코리아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베트남 진출 총 38개 공공기관, 공기업, 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25년도 활동 성과를 평가하고 '26년도 협력 추진 계획을 공유하였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최영삼 대사는 모든 분야를 아우를 정도로 확대되어 온 한-베트남 간 협력 관계를 평가하고, 2026년 주요 고위급 교류 등 계기에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팀코리아 차원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협력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협력의 질적 심화 및 도약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확대 및 개편된 'K-이니셔티브 팀코리아 협의체'가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개발협력, 경제, 문화, 교육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국가 차원을 종합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플랫폼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작성자: 주 베트남 대사관

자료 원문 : [원문 링크](#)

베트남 팀코리아협의체 활동 내역은 앞으로도 지면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으로 전파가 필요하신 기관은 코트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토성 제조 혁신의 주역 - 대롱비나

강대엽 법인장



강대엽 법인장

대롱비나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베트남 푸토성에서 대롱비나를 이끌고 있는 법인장 강대엽입니다. 저희 대롱비나는 경남 김해시 진례면에 본사를 둔 (주)대롱산업 (대표 김문태)의 글로벌 거점으로서, 지난 2016년 이곳 푸토성 벳찌시 트위번 공단에 직접 투자를 통해 자가 공장을 설립하며 베트남 시장에 본격적인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설립 이후 지금까지 LG전자 창원사업장의 가전 부문과 자동차 1차 협력사에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그 결과 2025년 매출 350억 원이라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제는 향후 3년 내 매출 5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규모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인재 육성과 조직 활성화를 통해 팀별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고객의 요구에 한발 앞서가는 '지속 가능한 성장 기업'으로 나아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인 '와이어링 하네스'가 생소한 독자들을 위해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 용어라 다소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와이어링 하네스(Wiring Harness Ass'y)'는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내부에서 전기에너지를 전달하고 신호를 제어하는 필수 부품입니다. 우리 몸에 비유하자면 각 기관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혈관'이나 명령을 전달하는 '신경망'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수많은 전선을 설계도면에 맞춰 하나로 묶어 정리한 조립품을 말합니다.

저희 대롱비나 공장에서는 이 하네스를 생산하기 위해 전선을 정밀하게 자르는 커팅(Cutting), 피복을 벗기는 스트리핑(Stripping), 전선 끝에 단자를 압착하는 터미널 크림핑(Terminal Crimping), 그리고 이를 하우징 및 커넥터에 삽입하여 배선을 조립하는 전 과정을 정밀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고품질의 하네스는 현재 한국으로 100% 역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23년 하반기부터는 자동차용 하네스 전용 설비와 생산 라인을 완벽히 구축하여 사업 포트폴리오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최근에는 LG전자 베트남 하이퐁 사업장에도 전기오븐(OVEN)용 하네스를 본격적으로 납품하기 시작하며 현지 공급망 또한 견고하게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9년째 현지를 지키며 느끼시는 베트남의 사업 환경은 어떤가요?

흔히들 베트남을 '기회의 땅'이라 부르지만,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온도는 사뭇 다릅니다. 과거에는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한 노동집약형 사업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글로벌 기업들과 특히 중국 업체들이 대거 진출하며 제조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숙련도 높은 인력의 부족입니다. 일반 작업자조차 채용이 어려워지면서 임금 상승은 물론, 비숙련 인력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교육 훈련비와 각종 복리후생 등 환경 인프라 조성을 위한 부대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법과 행정 절차의 불투명성이나 세금·인허가 규정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고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제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리스크 관리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특히 ESG 경영에 따른 폐수 및 친환경 규제와 대폭 강화된 소방법 등 기업이 넘어야 할 실무적 산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파고 속에서도 FTA 효과를 통한 관세 절감과 수출 경쟁력 면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리스크를 관리하며 기회를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대롱비나 푸토 공장

기업을 운영하며 겪으신 가장 큰 애로사항과 극복 전략은 무엇입니까?

아마 베트남에 진출한 모든 한국 기업이 깊이 공감하시겠지만, 현재 저희의 가장 큰 숙제는 바로 '인력난'입니다. 베트남의 질적·양적 성장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특히 최근 중국 업체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인력 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채용 환경이 매우 척박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손이 부족한 문제를 넘어 기하급수적인 인건비 상승과 인사·노무 관리의 난도를 높이는 심각한 경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롱비나는 이러한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두 가지 핵심 전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동화 설비 도입'입니다. 단순 반복 공정에 대한 인력 의존도를 물리적으로 낮추기 위해 과감하게 설비를 확충하고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체계적인 교육 훈련'입니다. 인력이 귀해질수록 현재 보유한 직원 개개인의 기술 숙련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기에,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소프트웨어적 강화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곧 경쟁력'이라는 믿음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는 공정 개선 활동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베트남 진출을 준비중인 한국기업에게 조언해주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제가 감히 완벽한 해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난 9년간 현장에서 법인을 이끌고 푸토성 코참 사무총장으로 4년간 활동하며 느낀 생생한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 또한 주변의 훌륭한 선배 기업인들과 동료들의 조언을 경청하고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며 대롱비나에 접목해 온 과정을 거쳤기에, 이 경험이 예비 진출 기업들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점은 '사전 조사 없는 막연한 기대는 금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저렴한 인건비나 주변 지인의 권유에만 의존해 진출하기에는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너무 큼니다. 표면적인 임금 외에도 지역별 인프라 환경에 따른 관리 비용을 철저히 체크해야 하며, 특히 최근 제조업 전반에 나타나는 높은 이직률과 숙련 인재 부족 현상을 직시해야 합니다. 비숙련공을 확보하여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초기 교육 및 훈련 비용이 예상보다 막대하게 발생할 수 있음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베트남의 문화와 역사, 그들만의 정서를 깊이 이해하려는 진정성 있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한국적 사고방식만 고집하다 현지 조직 관리에서 역효과가 발생하는 사례를 주변에서 종종 목격합니다. 법과 규정이 수시로 바뀌고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행정적으로 애를 먹는 일이 빈번한 만큼, 지인의 조언에만 혹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를 통한 객관적인 법리 해석과 충분한 현장 검토를 거치시길 권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인과 한국 기업에 매우 호의적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토대 위에서 리스크에 현명하게 대응하고 현지인들의 마음을 얻는 경영을 펼친다면, 베트남은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최고의 전초기지가 될 것입니다.



LG전자 가전용 하네스를 생산하는 대롱비나 베트남 공장 라인 및 개발팀

베트남 법인 자본금 납입관련 실무상 이슈들

1. 베트남 자본금 관련 이슈

외국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현지 법인 설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투자등록증(IRC) 및 기업등록증(ERC)을 발급받는 절차 자체도 중요하지만, 실무에서는 그 이후의 자본금 납입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베트남 법인 설립 이후 자본금 납입과 관련하여 실무상 반드시 유의해야 할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자본금 납입 기한

베트남 기업법에 따르면, 법인은 설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된 자본금을 전액 납입하여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비교적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납입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외국 투자자의 경우 해외 송금 절차, 외환 신고, 내부 승인 절차 등의 지연으로 인해 납입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자본금 납입 기한 연장 또는 자본금 감액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동시에 행정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약 3,000달러 수준의 과태료가 발생하는 사례도 확인됩니다. 따라서 자본금 납입 기한은 단순한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실질적인 비용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리가 필요합니다.



3. 환율 변동에 따른 자본금 미납 이슈

외국 투자자의 자본금은 통상 USD 기준으로 투자등록증에 기재되며, 동시에 베트남 동(VND) 금액이 병기됩니다. 문제는 실제 자본금 납입 시점의 환율이 투자 등록 시점과 상이한 경우 발생합니다. 납입일 기준 환율이 상승할 경우, 동일한 USD 금액을 송금하더라도 환산된 VND 금액이 등록된 금액에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식적으로는 자본금이 전액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추가 납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 등 투자국에서는 이미 해외 투자 신고를 완료한 이후이므로 추가 송금이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환율 하락으로 인해 VND 기준으로 더 많은 금액이 납입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문제로 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 실무입니다. 다만 이는 제도적으로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설립 단계에서 환율을 보수적으로 반영하여 VND 금액을 다소 낮게 설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효한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4. 현물 출자

베트남 법령상 자본금은 현금뿐만 아니라 기계 설비, 장비,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자산 형태로 출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현물 출자를 권장하기 어렵습니다. 첫째, 현물 출자 자산의 가치 평가 및 승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 소요가 큽니다. 둘째, 출자된 자산이 기계 설비 등 유형 자산인 경우, 이후 처분 과정에서 단순 매각이 아닌 감자 절차를 수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감자 절차는 행정 인허가가 복잡하고 심사도 엄격한 편입니다. 더 나아가 프로젝트의 책임 재산이 감소한다는 이유로 관할 당국이 자본금 보강을 요구하는 사례도 실무상 확인됩니다. 따라서 현물 출자를 통한 초기 투자보다는, 자본금은 현금으로 납입하고 이후 필요한 자산은 별도의 매매 계약을 통해 취득하는 구조가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5. 마치며

베트남 법인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 납입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로 인식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법적, 행정적 리스크가 내재된 중요한 단계입니다. 납입 기한 관리, 환율 리스크 대응, 출자 방식의 선택 등은 모두 투자 안정성과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초기 설계 단계부터 이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외국 투자자의 경우 자국의 외환 규제 및 내부 승인 절차까지 함께 고려하여 사전에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향후 베트남 투자 환경은 점차 정교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러한 기본적인 실무 쟁점에 대한 이해가 성공적인 투자 수행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전현우 한국변호사

(現) 법무법인JP 베트남 지사장

(前) JB증권 베트남 감사위원

(前) 한국예탁결제원 변호사

(前) 법무법인JP 한국사무소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사항: 기업법무, 금융, M&A, 부동산

연락처: (84-4) 3724 5201~3

이메일: bhsjun@jplawvn.com



전현우 변호사

재무제표 이해의 필요성과 현금흐름의 기초

들어가는말

안녕하십니까? 동아회계법인 베트남 대표 엄진용 회계사입니다.

지난 1월호부터 시작한 '베트남 회계기준(VAS)에 따른 재무제표를 읽고 이해하기' 연재가 어느덧 네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와 회계기준의 특징을 순차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4월호부터는 독자 여러분께서 전체 연재의 흐름을 보다 직관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도록 주제별 시리즈 명칭을 병기하여 내용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재무제표를 바라보는 투자자의 관점과 경제의 기초인 현금흐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재무제표에 왜 관심을 두어야 하는가?

지난 호에서는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설명의 일환으로 회계기준의 일부 및 베트남의 사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재무제표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두 가지 정도 일반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식 시장과 환율 시장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자 개개인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 미국 주식 시장 또는 우리나라 국내 주식 시장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을 테지요. 수십 년간 코스피 지수 2,000~3,0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국내 주식 시장이 불과 몇 개월 만에 5,000포인트를 넘어 6,000포인트를 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물론,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는 6,000포인트를 하회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원/달러 환율 역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삼성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반도체 양대 산맥 중 하나인 SK하이닉스에서는 무려 2,964%에 달하는 역대 최고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화제가 되었으며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내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이야기는 왜 하지 않고 갑자기 주식 시장에 환율 이야기를 하는지 의아해하는 분들이 꽤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일반 개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코스피이든 코스닥이든 어느 시장에 속한 기업이라도 재무제표 자체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환경과 끝나지 않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중동 전쟁의 위기 상황 속에서 남들도 다 하는 주식 시장(그것도 정부가 직접 나서서 소위 '국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국내 주식 시장에 투자를 종용하는 듯한...)에서 왠지 하지 않으면 소외될 것 같은 느낌으로 무작정 뛰어드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조금 관념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주식이라는 것은 각 기업의 현재 상황과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모두 감안하여 이루어진 기업 가치를 발행한 주식 수로 나눈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각 기업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려면 필요한 것이 재무제표이며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파악하려면 각 기업들이 공시하는 사업보고서 및 각종 뉴스 같은 것들이 되겠지요.

이러한 이유로, 우선적으로 내가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이 현재 어떠한 상태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재무제표이니 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경우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중에는 일반인을 위해 판매 중인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서적이 많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기업의 내재된 능력과 공식적으로 도출된 실적에 기반한 성적표인 재무제표를 무시하고 단지 주식 시장으로 내몰리는 투자의 형태는 자칫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툴립에 대한 투기 광풍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2. 현금 흐름의 중요성

현금 흐름에 대한 이해는 역시나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제가 초등학교(당시는 '국민학교')에 막 입학할 당시 짜장면 한 그릇의 가격은 500원이었습니다. 거북선이 들어간 500원짜리 지폐 한 장이면 맛있는 짜장면을 먹을 수 있었지요. 하지만 2026년 현재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짜장면 한 그릇의 가격은 1만 원 가까이 하지요? 40여 년 전과 비교를 하면 명목상 짜장면 가격은 20배가 올랐습니다. 그때 당시라면 한 봉지의 가격이 100원가량 할 때였으니 짜장면은 상당히 고급 음식에 속했었습니다. 특별한 기념일이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중화요리집을 방문해서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이었지요. 이랬던 짜장면이 2026년에 와서 중화요리집에 가보면 곱빼기도 아닌 스무 그릇만큼의 양으로 주던가요? 절대 그럴 일은 없지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단지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과거에 비하지도 못할 만큼 선진 국민의 수준만큼 올랐기 때문일까요?

①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크게 2가지 지표로서 정부에서 관리를 하며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의는 경제학적으로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는 가끔 뉴스에서 접하는 극단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소식을 접하곤 하는데요. 멀리는 1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의 상황이 대표적이고 가깝게는 멀리 남미에 있는 아르헨티나 또는 베네수엘라와 같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정부 정책으로서 금리 정책, 재정 정책 등을 동원하여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발생하더라도 일반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은 나쁘기만 한 것일까요? 그리고, 재무제표 등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은 고도로 성장하는 경제를 갖고 있는 국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온 나라가 개발과 투자에 들떠있고 그 과실을 전체 국민들이 맛보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정부는 확대재정정책을 활용합니다. 즉, 적극적으로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지요. 이 시기에는 역시 통상적으로 금리 수준이 상당히 높기도 합니다. 높은 금리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제 성장률이 이를 상쇄하는 것이지요. 개개인의 월급도 매년 다르게 수직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반감을 갖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도 성장이 정체되기 시작하면 과거에 시중에 많이 풀렸던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여전히 금리 정책으로는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여야 하나 그렇게 되면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금리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국가 성장률을 제고하기 어려워지는 경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부터는 재정 정책보다는 금리 정책이 보다 더 유의미한 중요성을 갖게 됩니다.

② 금리

우리가 보통 접하는 금리라는 것은 보통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준 금리라는 것도 있고, 각각의 금융 기관들이 정하는 기간별 금리 등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바로 이 금리가 각 국가의 신용 등급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되며, 국가뿐만 아니라 각 개별 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의 가격도 결정하게 되며 위에서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이 모두를 합치면 돈이 얼마의 가치를 지니고 신용 상태가 어떠한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금리는 간단하게 요약하여 정의를 하자면 ‘돈의 가치’라고 정의를 합니다. 아니 돈이면 그냥 돈이지 돈에 무슨 ‘가치’가 있다는 것인가 하고 의아해하는 독자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신사임당이 들어간 5만 원짜리 돈은 그냥 5만 원짜리인 거지 그렇다면 5만 원짜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건가? 라는 생각이지요.

결론적으로 돈이라는 것은 절대 가치를 지니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이를 상대 가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의 가치는 영구불변하게 5만 원의 가치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화폐라고 표현되는 돈이라는 것은 각 시대 별로 그리고 각 국가별로 고유의 가치가 아닌 반드시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상대가 필요합니다. 통상 금리가 비싼 경우 그 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갑니다. 즉, 돈을 빌리는 비용이 비싸진다는 뜻이며 사람들은 돈을 쓰기보다는 저축을 하려고 하니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귀해진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금리가 낮은 경우 돈을 빌리는 비용이 저렴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축을 하는 대신 어떻게든 은행 대출을 받아 무엇이라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흔해집니다.

맺음말

다음 호에서도 이번 호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제표 읽기 시리즈 다시 보기]

- VAS 실전 가이드 ① (22탄): 베트남 재무제표의 기초와 VAS의 특징 (1월호)
- VAS 실전 가이드 ② (23탄): 재무제표의 3요소: 자산, 부채, 자본의 정의 (2월호)
- VAS 실전 가이드 ③ (24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전망과 베트남 사례 (3월호)

베트남 수출용 원자재 수입세 면제 제도 및 위탁가공 시 유의사항

베트남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용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한 수입세 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위탁가공을 활용한 생산 구조가 확대됨에 따라 해당 제도의 적용 범위와 요건이 실무상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세총국은 2026년 3월 4일자 공문 제13251/CHQ-NVTHQ를 발행하여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보고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면세 적용 기준과 위탁가공 시 유의사항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1. 수출용 원자재 수입세 면제 제도 개요

베트남 수출입세법 및 시행령 제134/2016/ND-CP(개정: 시행령 제18/2021/ND-CP)에 따르면, 가공을 위해 수입되는 물품 및 가공 계약에 따라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출입세가 면제됩니다.

구체적으로 면세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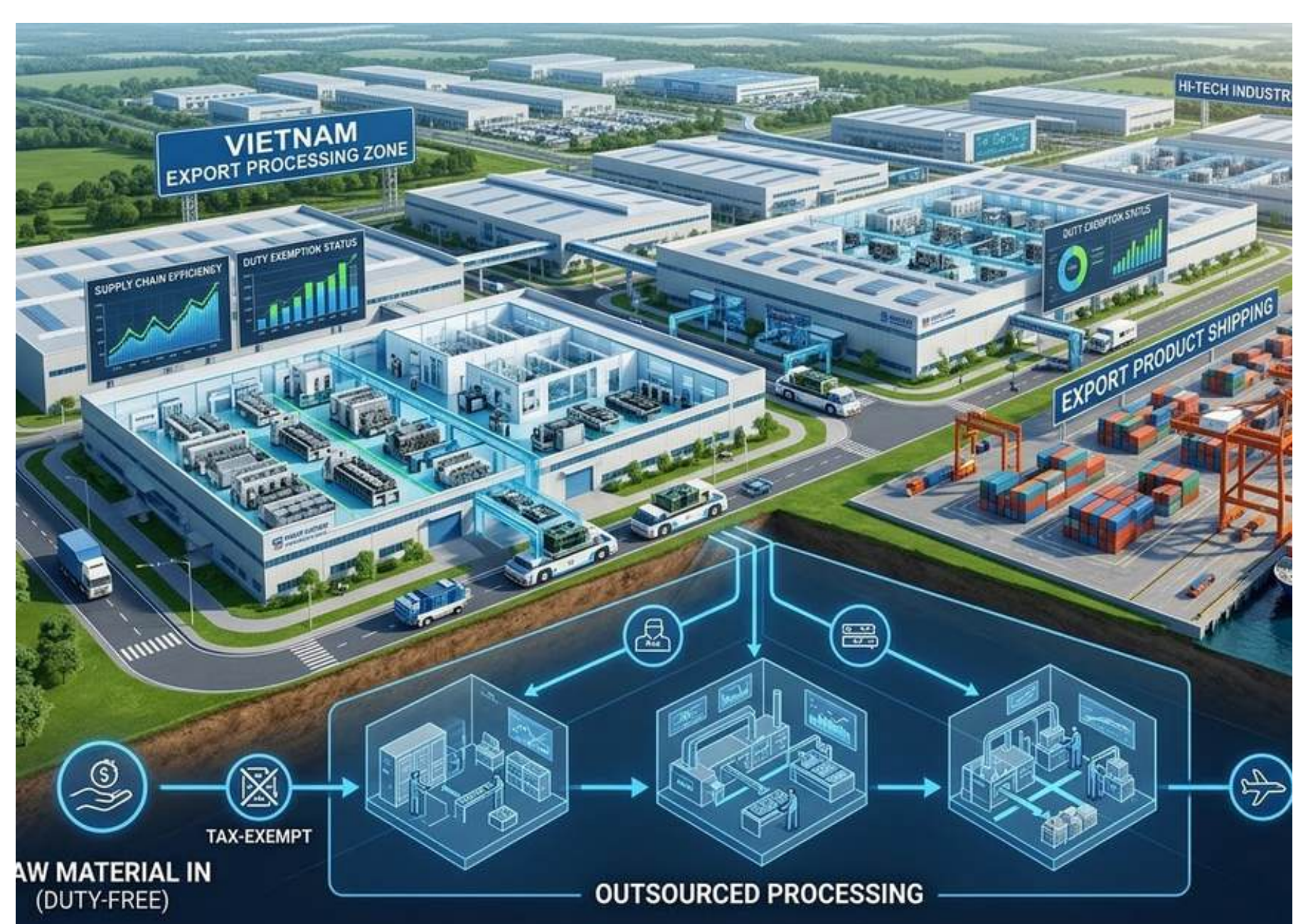
- 수출품을 직접 구성하거나 가공에 투입되는 원자재, 반제품, 소모품 및 부품
- 수출품 포장재
- 판매·교환 또는 소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오직 샘플 용도로만 사용되는 수입품
- 가공 수행을 위한 기계·장비, 가공 제품에 부착되는 완제품, 보증용 예비 부품 등
- 가공 목적으로 수입되었으나 폐기가 승인되어 실제로 폐기된 물품

한편, 가공 계약 종료 시 사용되지 않은 수입 원자재는 원칙적으로 재수출해야 하며, 재수출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면세 적용 요건 및 판단 기준

면세 적용을 위해서는 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세관 신고 시 해당 계약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가공계약 및 그 부속서에 대한 세관 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납세자 또는 하도급 수행자는 베트남 내에 생산·가공시설 및 기계·장비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관련 시설 및 계약(가공계약, 하도급계약 등)을 관세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생산시설 및 설비 보유 여부는 면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3. 위탁가공 시 면세 적용 범위

납세자가 수입한 원자재 또는 해당 원자재로부터 가공된 반제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업체에 위탁하여 가공을 수행한 후, 반제품을 재반입하여 추가 가공하거나 완제품을 수령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도 해당 원자재에 대한 수입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납세자가 수입한 물품의 전부를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관계사에 위탁하여 생산 또는 가공한 후 이를 수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면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수탁업체가 일부 공정을 다시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4. 통관 및 사전 신고 의무

수출용 원자재를 재가공을 위해 외부 업체에 인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재가공 시설 및 재가공 계약에 대해 세관에 통지해야 하며, 해당 통지는 원칙적으로 1회만 수행하면 됩니다. 다만, 기존 신고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수정·보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재가공을 위한 물품 이동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관 절차는 요구되지 않으나, 원자재, 소모품 및 제품의 반출·반입과 관련된 모든 증빙 서류는 재무부의 회계 및 감사 규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보관해야 합니다.



5. 실무 유의사항

- **생산시설 요건 미충족에 따른 면세 부인 리스크:** 납세자 또는 수탁업체는 베트남 내 생산·가공시설 및 설비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하고 이를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미충족 시 면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공계약 및 세관 신고 누락 리스크:** 가공계약, 하도급계약 및 변경 사항은 세관에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신고 누락 시 사후 세액 추징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탁가공 구조에 대한 사전 통지 의무:** 수출용 원자재를 외부 업체에 재가공을 위해 반출하는 경우, 재가공 시설 및 계약에 대해 사전에 세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해당 절차를 누락할 경우 면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 통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재고 및 물량 관리 리스크:** 수입 원자재, 반제품 및 완제품 간의 수불(入出庫) 관리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하며,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관련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가공 후 잔여 원자재에 대해서는 재수출 또는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므로, 재고 관리 미흡 시 세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관계사 위탁 시 형식 요건 충족 필요:** 지분 50% 이상 관계사에 위탁하는 경우 면세 적용이 가능하나, 단순한 거래 관계가 아닌 지분 구조가 입증되어야 하며, 관련 계약 및 기업 지배구조 자료를 통해 이를 명확히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6. 결론

베트남의 수출용 원자재 수입세 면제 제도는 위탁가공을 포함한 다양한 생산 구조에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업에 유리한 제도입니다. 다만, 생산시설 보유 요건, 세관 신고 및 사전 통지 의무 등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세 적용이 제한되거나 사후 세액 추징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실무상 해석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여람 관세사 (국가공인 관세사)

KOTRA 하노이 무역관

FTA해외활용지원센터

전화: 024-3946-0511 (620)

메일: yeoram@kotra.or.kr



안장 (AN GIANG)성 개요

구분	내용
면적-인구	면적 : 9,888.91 평방 킬로미터 인구 : 4,952,238 명
지정학적 위치	<p>안장성은 베트남 메콩델타 서남부에 위치한 성으로, 인근 성이었던 끼엔장성과의 통합을 통해 면적이 9,888.91km²로 확대되면서 메콩델타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성이 되었음. 현재 행정 구역은 총 102개 기초 행정단위(85개 읍, 14개 동, 3개 특별행정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리적 경계는 다음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쪽: 동탑성과 접경 • 서쪽: 타이만(해역) 및 푸꾸옥섬과 인접 • 남쪽: 켄터시 및 까마우성과 접경 • 북쪽: 캄보디아와 접경 <p>안장성은 캄보디아와 약 148km에 이르는 국경선을 보유하고 있어 국제 교역 및 국경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관문 역할을 수행함. 또한 200km가 넘는 해안선과 다양한 도서 지역으로 구성된 해양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해양 경제 발전 측면에서도 높은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 이처럼 안장성은 캄보디아 국경 경제와 타이만 해양 경제 발전이라는 이중의 전략적 강점을 바탕으로 메콩델타 지역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p>
교통 시스템	<p>안장성은 베트남 남부의 핵심 교통 인프라 자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음. 주요 도로망으로는 호치민 국도, 로떼-락소이(Lộ Tế – Rạch Sỏi) 고속도로, 찌우독-켄터-속짱(Châu Đốc – Cần Thơ – Sóc Trăng) 고속도로 등이 구축되어 있음.</p> <p>이와 더불어 푸꾸옥(Phú Quốc) 국제공항 및 라익자(Rạch Giá) 공항의 현대화, 푸꾸옥 국제 여객항과 라익자 여객항의 확장 등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가 전략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이러한 인프라 확충은 지역 내 관광 산업 활성화 및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견고한 기반이 됨.</p> <p>수자원 측면에서는 띠엔(Tiên)강과 허우(Hậu)강이라는 두 대하(大河)가 성을 관통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캄보디아와의 수상 교역 및 내륙 수운 물류 협력 확대에 있어 독보적인 경쟁력을 제공하고 있음.</p>
GRDP 성장률 /1인당	GRDP 예상 성장률 : 8.39% 1인당 GRDP : US 3,200 달러/년(추정치)
경제 규모 산업별 성장률	총수출액 : US 24.3억 달러; 총수입액: US 5.3억 달러 산업별 성장률: 제조업/건설업(12.88%), 서비스업(10.61%), 농림어업(3.53)
경제구조	제조업/건설업 : 17.49% , 서비스업 : 42.21% , 농림어업 : 35.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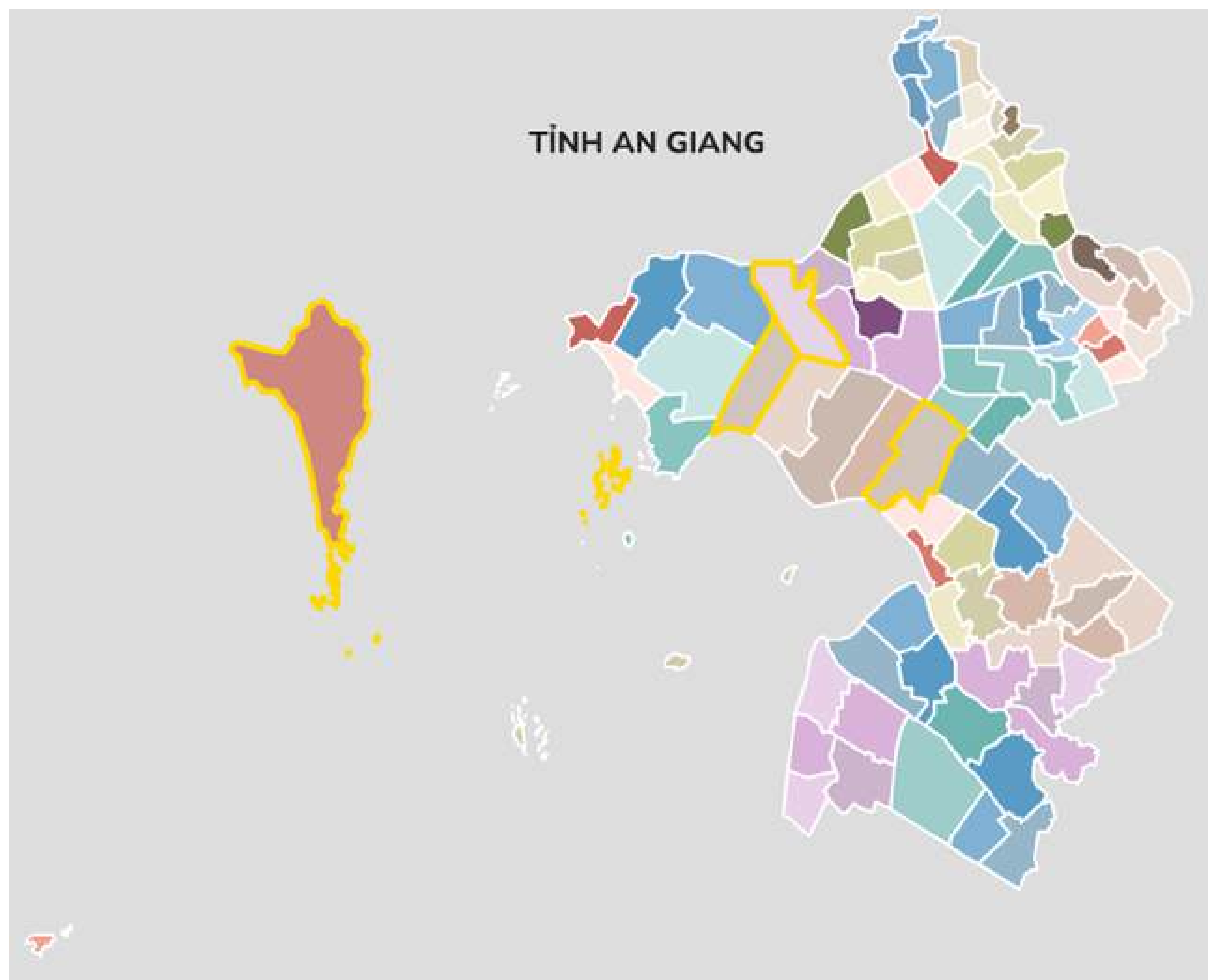
안장 (AN GIANG)성 개요

구분	내용
인적자원	노동연령인구 비율 : ~60% 노동연령인구 중 직업 교육을 받은 비율 : 74% 자격증 소지 노동자 비율 : ~17.5%
최저임금	제1구역 : 531만 동/월, 즉 25,500동/시간 제2구역 : 473만 동/월, 즉 22,700동/시간 제3구역 : 414만 동/월, 즉 20,000동/시간 제4구역 : 370만 동/월, 즉 17,800동/시간
외국인 투자 (‘26.03월 기준)	총 외국인투자 : 73건 FDI 프로젝트에 US 8.01억 달러. 한국 투자 : 10건 프로젝트에 US 1.26억 달러.

안장성의 위치 및 상세 지도



안장성의 위치



안장성의 시내 지도

I. 투자 환경

1. 교통 시스템

1.1 교통 인프라 시스템

가. 도로망: 동서남북을 아우르는 포괄적 교통 체계

새롭게 통합된 안장성은 핵심 도로망 연계를 통해 지역 내외 연결성을 한층 강화하였음.

- 주요 고속도로 노선
 - 찌우독-꾸터-속짱 고속도로: 국경 관문에서 동부 해안 항만을 직접 연결하는 핵심 동서 축이자 성의 중심 지역을 관통하는 전략적 노선임.
 - 로떼-락소이(Lộ Tề – Rạch Sỏi) 고속도로: 까우란 및 밤꽁(Vàm Cống) 교량에서 행정중심지인 라익자(Rạch Giá)시까지 신속하게 연결되도록 확장·개선됨.
- 전략적 국도 및 간선도로
 - 국도 80호선: 빈롱 – 롱쑤옌 – 라익자 – 하띠옌을 연결하며, 통합 이후 물류 운송과 관광을 촉진하는 핵심 회랑을 형성함.
 - N1 노선: 지역 내부 및 접경 지역 교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 지방 도로임.
 - N2 노선: 총 연장 400km 이상으로 찐탄에서 안장성을 거쳐 락소이까지 이어지는 남부 핵심 축이며 현재 업그레이드 추진 중임.
- 지역 및 국제 연계망
 - 도내 도로 확충: 롱쑤옌-라익자 도로 및 DT945, DT947, DT958, DT960 등 주요 지방도를 연결하여 구(舊) 안장성-끼엔장성 및 서남부 지역 간 교역을 강화할 계획임.
 - 교량 인프라: 밤꽁 교량 등 주요 교량들이 물류 이동을 원활하게 하여 교통 효율성을 제고함.

나. 수로망: 하천과 해양의 결합

구(舊) 안장성의 하천망과 구(舊) 끼엔장성의 해양 경제 기반이 결합되어 강력한 경쟁력을 형성함.

- 내륙 수상 운송: 띠옌(Tiên)강과 허우(Hậu)강을 기반으로 빈떼(Vĩnh Tế) 운하, 라익자-롱쑤옌 운하 등과 연결되어 캄보디아항 물류의 핵심 역할을 수행함.
- 미토이(Mỹ Thới)항: 롱쑤옌시 인근 위치, 1만 톤급 선박 접안 가능 및 연간 150만 톤 화물을 처리하는 지역 핵심 항만임.
- 해상 항만 및 여객: 라익자, 혼쭙(Hòn Chông), 바이노(Bãi Nô) 등 3급 항만 클러스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푸꾸옥·남주 등 도서 지역을 잇는 고속선 노선이 해양 관광을 견인함.

다. 항공망: 서북부 지역 유일의 항공 거점

- 푸꾸옥 국제공항: 글로벌 관광객 유입 및 교역을 담당하며 성의 '관광 중심 특구' 발전을 견인하는 동력임.
- 라익자 공항: 국내 항공 노선을 통해 행정 중심지와 호치민 등 대도시를 연결, 투자 유치 환경을 조성함.

1.2 관광 산업 현황

- 지형적 특징: 평야, 해양·도서, 산지(탄선 산맥 등)를 고루 갖춘 다각적 생태 환경 보유.
- 운영 인프라: 숙박시설 95개소, 여행사 16개사, 공식 인증 관광지 5개소 운영 중.
- 2025년 주요 실적:
 - 총 관광객: 약 2,413만 명 (전년 대비 27.3% 증가)
 - 국제 관광객: 약 191만 명 (전년 대비 89.9% 증가, 푸꾸옥 중심 급성장)
 - 총 관광 수입: 약 67조 6,840억 동 (전년 대비 91.2% 증가)
- 투자 규모: 총 317개 프로젝트(약 408조 동 규모) 추진 중이며 푸꾸옥, 하띠엔, 쩌우독에 집중됨.

II. 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경제 발전 현황 및 방향

유형	주요 거점	비고
산업단지	빈롱(Binh Long) 산업단지, 빈호아(Binh Hoa) 산업단지, 밤꽁(Vam Cong), 쉰언또(Xuan To), 안장성의 호이안(Hoi An), 타잉록(Thanh Loc), 투언이엔(Thuan Yen)	대규모, 다산업
국경경제구역	띤비엔(Tinh Bien), 빈쓰엉(Vinh Xuong), 카인빈(Khanh Binh)	국경 연계 상업·물류 거점
해양경제구역 / 항만	하띠엔 – 파띠(Ha Tien – Pha Ty)	항만·관광·상업 서비스 연계

안장성 국경경제구역 투자 프로젝트:

안장성 인민위원회는 2025년 3월 6일 자 제218/TTr-UBND호 제안서를 통해 사업 시행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총리 승인 요청안을 제출하였음. 그러나 현재까지 베트남 총리의 검토 및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이후 2025년 10월 9일, 안장성 경제구역관리위원회는 제25/TTr-BQLKKT호 제안서를 통해 총리 승인 재요청 안건을 성 인민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이는 2025년 9월 25일 자 공문 제4651/VP-KT호에 따른 성 지도부의 지시에 의거한 것임.

카인빈(Khanh Binh) 국경관문 개방 및 승격 프로젝트:

카인빈 국경관문을 육상·수로 국제관문으로 승격하기 위한 사업과 관련하여, 안장성 인민위원회는 2025년 11월 7일 자 공문 제1627/UBND-NC호를 통해 관련 서류를 베트남 외교부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심사 후 정부 의결을 요청한 상태임. 추가적으로 띤비엔(Tinh Bien) 국경관문에는 현재까지 총 10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으며, 등록 면적은 9.37ha, 등록액은 2,680억 4,000만 동에 달함. 카인빈(Khanh Binh) 국경관문의 경우 누적 7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으로, 등록 면적 12.77ha, 총 투자액 4,666억 1,000만 동을 기록하고 있음. 한편 빈쓰엉(Vinh Xuong) 국경관문에는 1개 프로젝트가 있으며, 등록 면적은 1ha, 총 등록 투자액은 230억 동으로 집계됐음.

투자 잠재력

- 산업단지 강점: 안장성 내 산업단지들은 농·수산물 가공을 중심으로 생산 지원, 물류, 보조 산업 분야에서 외국인직접 투자(FDI) 유치에 강점을 보이고 있음.
- 국경경제구역: 캄보디아 및 아세안 지역과의 대규모 국경교역 거점으로서, 수만 헥타르 규모의 다기능(상업·산업·도시·서비스) 복합개발이 계획되어 있어 높은 성장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 통합 시너지: 안장성과 끼엔장성의 통합은 지리적 규모 확대와 함께 교통 인프라의 유기적 연결을 가능하게 하여, 도로·수로·국경관문·항만을 아우르는 통합 물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

1. 우대 정책

항목	법인세 / 수입세 / 토지세
산업단지 내	<p>베트남 투자법 제61/2020/QH14호에 따르면, 기업 및 투자자가 산업단지 및 경제구역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할 경우 투자 업종과 투자 지역(동법 제16조)에 따라 투자 인센티브 대상이 되며, 동법 제15조에서 규정한 다양한 형태의 우대 정책을 적용받게 됨.</p> <p>이와 함께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안장성 경제구역관리위원회는 안장성 내 산업단지 및 경제구역 투자 시 적용되는 주요 인센티브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인센티브: 법인세법 제67/2025/QH15호에 따라 적용 • 수입세 인센티브: 수출입세법 제107/2016/QH13호, 세무관리법 제39/2019/QH14호, 그리고 정부령 제134/2016/NĐ-CP(정부령 제18/2021/NĐ-CP로 개정·보완)에 따라 적용 • 토지 관련 인센티브 (사용료·임대료 감면 등): 토지법 제31/2024/QH15호 및 정부령 제103/2024/NĐ-CP에 근거하여 토지 사용료, 임대료 및 토지세 감면 적용 <p>세제상 추가 인센티브: 가속 감가상각 적용 및 과세소득 산정 시 비용 공제 한도 확대(해당 시)</p>
산업단지 외	<p>산업단지 내 우대 정책 외에도, 안장성에 투자하는 기업은 베트남 법령에 따른 공통 투자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음.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건설 기간 지원: 프로젝트의 기본 건설 기간 동안 토지·수면 임대료 면제 (임대 결정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 • 우선 투자분야 우대: 우선 투자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추가로 3년간 토지·수면 임대료 면제 • 지역 특화 우대: 경제·사회적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투자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기본 건설 기간 3년 임대료 면제 외에도 최대 7년간 면제 추가 적용

1.1 안장성 우대정책

안장성은 산업단지 외 지역으로의 투자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전략산업 및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경제·사회적 여건이 어려운 지역 토지임대료 지원

찌똌(Tri Ton), 띠비엔, 안푸(An Phu), 토아이선(Thoai Son), 띠쩌우(Tan Chau) 등 경제·사회적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사회적기업 분야에 투자할 경우 임대 기간 전체에 대해 토지임대료가 면제됨. 해당 정책은 우선투자지역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산업단지 외 프로젝트에도 적용 가능함.

투자 준비과정에서의 행정 절차 지원

안장성 정부는 기업 및 투자자의 사업 준비와 실행 전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함. 특히 행정절차와 부지 정리 과정에서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 친화적이고 혁신적인 행정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

투자 촉진 및 파트너·시장 연계 지원

안장성에서 다양한 투자유치 프로그램 및 비즈니스 매칭 미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지원이 이루어짐.

- 투자 제도·정책 및 기회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
- 투자 안내서, 도시·토지 이용 계획 지도, 중점·우선 프로젝트 목록 제공
- 대한민국, 일본, 유럽 등 국내외 기업 간 네트워크 연결
- 이는 산업단지 외 지역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투자 환경을 파악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

1.2 중소기업 지원 정책

지역 중소기업(SMEs)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 무역 및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세미나 개최
- OCOP 프로그램 제품 연계 및 수출 시장 진출 지원 포럼 운영
-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조기에 지역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1.3 통합 이후 우대정책

통합 이후 세부 우대정책은 아직 보완 중이지만, 두 성의 기존 정책과 전반적인 발전 방향을 바탕으로 새로운 안장성의 투자진흥 정책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됨.

핵심 전략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새로 통합 출범한 안장성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 대한 우대 정책을 강화할 예정임.

- 첨단 농업 및 농산물 심층 가공 산업
- 관광·서비스·물류·국경 무역
- 도시 인프라 및 산업단지 외 생산 활동

이들 분야는 투자유치 프로그램에서 중점적으로 홍보되고 있는 핵심 산업임.

국경 경제와 해양 경제 정책의 결합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이 추진됨.

- 띨비엔 국경관문, 빈쓰엉 국경관문, 카인빈 국경관문 등 국경 경제구역은 상업·서비스·물류 중심으로 지속적인 투자 우선 대상이 됨.
- 해양 지역 개발 구역에서는 해양 서비스, 수산 양식, 항만, 관광 산업 등에 대한 별도 지원 메커니즘이 유지 됨.

이러한 정책들은 통합 이후 하나의 체계로 정비되어 적용되며, 해당 지역 내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참고 사항

법인세(CIT), 설비·기계류 수입세 면제, 산업단지 외 지역의 기타 재정 인센티브 등 구체적인 우대정책은 베트남 현행 법령에 따라 적용되며, 각 투자 프로젝트가 베트남 투자법 및 관련 세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부여됨.

III. 외국인 투자 현황

1. 외국인 투자

2025년까지 안장성은 총 1,551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 주체 승인을 부여하였으며, 총 투자액은 약 617조 7,980억 동, 총 면적은 3만 8,246ha에 달함. 이 중 FDI(외국인직접투자) 프로젝트는 57건으로, 총 투자액은 27억 달러 이상임.

특히 푸꾸옥 특별구에는 312개 프로젝트가 집중되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투자 성과는 2026~2030년 기간 동안 경제·사회 발전을 견인하고, 산업 구조 전환 및 경제 성장 촉진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투자 프로젝트는 첨단 농업, 가공 산업, 서비스·관광, 물류, 고부가가치 산업, 인프라 및 도시 개발을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음. 특히 푸꾸옥과 주요 거점 지역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프로젝트들은 교통 인프라, 도시 개발, 항만, 공항, 레저·엔터테인먼트 시설, 현대식 산업단지 등을 포함한 종합 인프라 체계를 형성하고 있음. 이는 안장성을 메콩델타 지역의 경제·서비스·관광 중심지로 도약시키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음.

안장성 내 10대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순번	사업명	내용	투자국가	총투자액 (USD)
1	NVA 의류 공장	의류 생산 및 가공	태국	25,000,000
2	의류 생산 공장 투자 프로젝트	의류 생산 및 가공	싱가포르	30,000,000
3	Hoan Cau Vietnam Co., Ltd.	농림·수산업(수산 양식), 숙박 및 음식 서비스업	홍콩	32,000,000
4	Hwaseung Vina Co., Ltd.	스포츠화 및 신발 부품 생산·가공	한국	33,000,000
5	Ganh Gio 관광·헬스케어 개발 유한회사	숙박 및 음식 서비스업, 행정 및 지원 서비스업	베트남 –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46,000,000
6	Samho 안장 수출용 신발 생산·가공 공장 투자 프로젝트	신발·슬리퍼 및 관련 부품 생산·가공	한국	70,000,000
7	Bien Dep Phu Quoc 투자 주식회사	관광 투어 운영 및 홍보·기획·도매 등 관련 지원 서비스	베트남 –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114,285,714
8	Siam City Cement Vietnam Co., Ltd.	가공 산업, 도·소매업	베트남 – 태국	441,000,000
9	Siam City Cement Vietnam Co., Ltd.	가공 산업, 도·소매업	베트남 – 태국	656,000,000
10	베트남 석유가스그룹(PVN)과 외국 파트너의 BCC 사업(B광구 가스관 사업)	까마우, 안장, 켄터 지역 전력센터에 가스를 공급하는 B광구-오몬 가스관 사업 투자	베트남 – 케이맨 제도 – 일본	1,277,771,043

2. 한국 투자

2026년 3월 기준으로 한국 투자자들은 10개 프로젝트에 총등록액 US 126,007,172 달러 투자.

안장성 내 한국인 투자 프로젝트

순번	사업명	내용	위치	총 투자액 (USD)
1	YHSC Korea Co., Ltd.	음식점·식당 등 외식 서비스업, 음료 도매업	푸꾸옥 특구, 찐흥다오(Tran Hung Dao) 거리, 제7구역	50,134
2	배드민턴 생산 공장	배드민턴 생산	롱디엔(Long Dien) 읍, 미호아(My Hoa) 마을, 346번지	350,000
3	EZ Rach Gia Co., Ltd.	포장재 및 신발 제조	타잉록(Thanh Loc) 읍, 타잉록 산업단지, 1번 도로 A1-4, A1-5 필지	2,000,000
4	롯데시네마 빈컴 롱쑤이엔	음식점·식당 등 외식 서비스업, 음료 도매업	롱쑤이엔(Long Xuyen) 동, 찐흥다오 거리, Vincom Plaza 쇼핑몰 5층	2,506,684
5	복합 엔터테인먼트 센터 및 주거단지		롱디엔(Long Dien) 읍	7,842,105
6	판가시우스(메콩 메기) 부산물 활용 가공 공장	수산물 가공업(어분·어유)	쩌우푸(Chau Phu) 읍, 빈롱(Binh Long) 산업단지, D필지	9,550,000
7	Samho 안장 수출용 신발 생산·가공 공장	신발 생산 및 가공	빈호아(Binh Hoa) 읍, 빈호아 산업단지, C3 및 C5 필지	70,000,000
8	Lotteria Vietnam Co., Ltd. 지점	음식점·식당 등 외식 서비스업, 음료 도매업	빈타잉번(Vinh Thanh Van) 동, 3/2거리, B14 필지, Citimart Rach Gia	328,065
9	Hwaseung Vina Co., Ltd.	스포츠화 및 신발 부품 생산·가공	타잉록(Thanh Loc) 읍, 타잉록 산업단지 4번 도로	33,000,000
10	S Tech Toan Loc One Member Co., Ltd.	신발 부품 생산·가공 공장	빈호아(Vinh Hoa) 읍, 6마을, 빈호아흥남 산업 클러스터 C4 필지	380,184

IV. 산업단지 현황

1. 주요 산업단지 정보

안장성 내 주요 산업단지 정보

사업단지명	면적(ha)	주요정보
빈호아(Binh Hoa) 산업단지	산업용지 100ha (계획 면적 252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 면적: 약 92.68ha 입주율: 약 92.68% 인프라 투자 완료
쑤언또(Xuan To) 산업단지	57.4ha, 산업용지 32ha (계획 규모 140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 면적: 11.6ha 입주율: 약 36.6%
타잉록(Thanh Loc) 산업단지	계획 규모 약 250ha (1단계 150ha, 2단계 100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율: 1단계 약 61%
투언옌(Thuan Yen)	133.95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율: 약 38.76%
<p>○ 인프라 및 2차 투자자 유치 진행 중인 산업단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롱(Binh Long) 산업단지: 31ha • 밤꽁(Vam Cong) 산업단지: 194ha • 호이안(Hoi An) 산업단지: 100ha • 딘타잉(Dinh Thanh) 산업단지: 155ha • 쉐우로(Xeo Ro) 산업단지 • 락꺼우(Tac Cau) 산업단지 • 끼엔르엉(Kien Luong) 2 산업단지 		

2. 경제 특구

2.1 푸꾸옥(Phu Quoc) 특구

- 역할 및 주요 발전 방향: 리조트, 관광도시 및 해양·도서 서비스 생태계와 연계된 국제 관광·서비스·상업 중심지임.
- 핵심 인프라: 푸꾸옥 국제공항 확장 및 고도화 방안 추진 중(처리 용량 확대 및 대형 항공기 수용 목표).
- 우선 투자 유치 분야: 고급 관광, 국제 상업·서비스, 관광 물류, 야간경제, 서비스 연계 기술·혁신 등임.



2.2 끼엔하이(Kien Hai) 특구

- 공간적 특징: 남두(Nam Du), 혼째(Hon Tre), 라이선(Lai Son) 등 대표적 도서 군으로 구성된 해양 도서형 특구임.
- 주요 발전 과제: 해양·도서 관광, 여객선·관광선 운송 서비스, 수산업 지원(어업 후방 서비스), 양식 및 수산 자원 개발, 지속가능한 중소 규모 숙박 서비스 등임.



2.3 토쩌우(Tho Chau) 특구

- 개요: 베트남 최서남단(태국만 해역)에 위치한 해양 도서형 특별 행정단위로, 통합 이후 안장성에 소속됨. 푸꾸옥, 끼엔하이와 함께 성의 전략적 해양 도서 삼각 축을 형성함.
- 지리적 위치: 라익자 시에서 남서쪽으로 약 220~230km 떨어져 있으며, 태국만을 지나는 국제 해상 항로와 인접함.

- 구성 및 인구: 총 8개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토쭈섬이 가장 큼), 소규모 및 낮은 인구 밀도가 특징임.
- 성격: 경제 발전과 국방·안보를 결합한 해양 도서 특구임.
- 인프라 및 연결성: 라익자-푸꾸옥-끼엔하이 노선을 통한 해상 선박 연결 기반임.
- 적합한 경제 발전 방향: 국방·안보와 연계된 해양 경제, 수산업 후방 지원, 주민 생활 서비스, 체험·탐방형 생태 관광(환경 보전을 위한 관광 수용력 관리 병행) 등임.



경제특구 비교 요약표

구분	푸꾸옥(Phu Quoc)	끼엔하이(Kien Hai)	토쭈우(Tho Chau)
주요 역할	관광 및 국제 상업	관광 및 해양 경제	국방 및 해양 물류
인구 규모	대규모	중간 규모	소규모
투자 방향	강한 추진 및 다각화	중간 수준 및 지속 가능성	선별적 및 엄격 관리
관광 유형	고급 및 대중형	생태형	체험형 (제한적)

V. 투자 유치기관 정보

기관명	주소	담당자/직위	연락처/이메일
안장성 투자·무역·관광 진흥 센터	라익자(Rach Gia) 동, 꼬박(Co Bac) 거리, 54번지	Mr. Dinh Minh Hoang (부센터장)	Tel: 0919-707-909
안장성 경제구역 관리 위원회	라익자 동, 응우옌 쩡 쪽(Nguyen Trung Truc) 거리, 531번지	Mr. Pham Cong Giat (부위원장)	Tel: 0919-466-308
안장성 재정국 산하 투자진흥 및 기업지원 센터	라익자 동, 머우탄(Mau Than) 거리, 7번지	Mr. Nguyen Cong Khai (센터장)	Tel: 0939-777-778

자료원: 안장성 인민위원회



2026 외국투자자를 위한 조세가이드



[클릭시 해당 보고서로 이동합니다.](#)

1. 한국의 조세
2. 외국인 투자법인의 세금
3. 외국인 투자법인 근로자의 세금
4. 외국인 투자법인 주주의 세금
5. 법인설립·자산의 취득 및 유지와 관련된 세금
6. 그 밖의 조세제도

2026 외국투자자를 위한 노사가이드



[클릭시 해당 보고서로 이동합니다.](#)

1. 노동법 개요
2. 개별적 근로관계
3. 노동조합
4. 노사협의회
5. 4대 보험
6. 기타 주요 사항

2026 베트남 하노이 국제 무역 전시회 [VIETNAM EXPO]

전시회명	The 35th Vietnam International Trade Fair 2026
개요	1991년 최초로 개최되어 2026년 기준 35회째 개최 예정인 ‘베트남 엑스포’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쿠바 등 25개국 내외의 해외기업 200여개사가 참가하는 베트남 북부지역 최대 규모의 종합 박람회입니다. 베트남, 신남방정책의 중심 국가로 우리 기업의 베트남 시장진출 가능성 파악, 다양한 유통채널 확보 등 베트남 시장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 한국관으로는 1999년 이래 2025년까지 26회째 참가하였으며, 참가규모가 지속 확대되어 주요 해외참가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개최기간	2026.04.08 - 2026.04.11
개최장소	Vietnam Exposition Center (VEC)
주최기관	VINEXAD – Exhibition & Event
개최규모	15000sqm(m ²)
웹사이트	https://vietnamexpo.com.vn/en
산업분야	식품&음료, 패션&섬유, 뷰티&미용용품, 농수산&임업, 건강&스포츠, 의료&제약
전시품목	기계 및 장비, 전기전자, 건자재, 가구, 의류, 식품 및 음료, 서비스업 등 산업 및 생활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전시품목
담당자	Nguyen Thu Hong (Ms) / +84-24-38255546 / hongnt@vinexad.com.vn



베트남 주요 경제 지표

對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국가명	1988. 01. 01~2026. 2. 28 기준 누계		2026. 01. 01 ~ 2. 28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한 국	10,425	95,231.22	67	1,337.68	1,976.96
싱가포르	4,463	91,612.53	73	1,101.64	1,901.76
일 본	5,738	78,977.89	35	171.02	256.46
대 만	3,444	42,328.38	33	37.36	74.95
홍 콩	3,281	41,642.24	60	142.98	208.37
중 국	6,494	35,396.69	192	522.83	807.46
버진아일랜드(영)	943	24,990.31	4	0.74	22.85
네덜란드	797	15,392.21	5	0.27	1.35
태국	468	15,052.66	6	32.33	233.83
말레이시아	798	14,829.86	11	3.75	3.93
미국	1,531	12,415.50	23	85.61	107.31
기 타	7,551	65,538.34	111	103.79	437.96
전체 합계	45,933	533,407.85	620	3,540	6,033.19

자료원 : 베트남 재무부 산하 투자청(FIA: Foreign Investment Agency)

對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연번	산업	2026. 2. 28 기준 누계		2026. 01. 01 ~ 2. 28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1	제조, 가공	19,187	328,783.57	138	2630.48	4406.02
2	부동산 경영	1,325	80,061.96	10	325.94	354.34
3	전력, 가스, 용수 제조 공급	208	42,690.16	2	32.03	32.03
4	호텔, 외식서비스	1,100	13,345.12	11	0.79	20.14
5	건설	9,534	12,817.73	262	358.58	496.44
6	도소매, 유지보수	1,893	10,750.90	16	8.93	26.19
7	물류 운수	1,335	7,327.34	19	2.66	14.34
8	과학기술, 전문 활동	5,241	6,513.01	96	22.79	208.88
9	정보통신	3,292	5,411.35	35	128.39	211.89
10	채광	108	4,970.74	-	-	0.11
11	교육, 양성	727	4,805.50	6	2.65	3.23
12	농,임,수산	539	3,874.26	1	2.00	3.84
13	예술 오락	87	3,847.48	-	-	220.36
14	용수 공급, 폐기물 처리	156	3,170.29	2	0.24	0.24
15	의료와 사회복지	157	1,849.73	-	-	2.69
16	행정, 지원 서비스	766	1,299.71	20	24.00	27.59
17	금융, 은행, 보험	166	939.40	1	0.03	3.65
18	기타 서비스	106	938.96	1	0.07	1.19
19	가구내 고용 활동	6	10.64	-	-	-
합 계		45,933	533,407.85	620	3,539.59	6,033.19

자료원 : 베트남 재무부 산하 투자청(FIA: Foreign Investment Agency)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억, 증감율%)

구분	2023	2024	2025	2026.2
수출	3,546	4,055	4,750	763.9(+18.9)
수입	3,263	3,807	4,550	793.4(+26.3)
무역수지	280	247	200	-29.5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목명	2023	2024	2025	2026.2
각종 전화기 및 부품	57,336	72,584	107,748	17,690(+40.9)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	52,379	53,891	56,709	11,146(+21.0)
기계/플랜트 및 부품	43,128	52,191	59,046	9,286(+20.6)
섬유/직물제품	33,329	37,036	39,641	5,699(+1.2)
신발류	20,237	22,871	24,203	3,466(-0.1)
원목 및 목제품	14,157	15,066	17,529	2,867(+12.7)
철강제품	13,467	16,282	17,204	2,696(+5.0)
수송수단 및 부품	8,971	10,040	11,285	1,717(+20.3)
수산물	4,355	4,407	4,314	639(-1.4)
원사(Yarn)	3,973	4,594	5,473	828(-1.7)
기타	103,339	116,569	131,907	20,358
합계	354,671	405,531	475,059	76,392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목명	2023	2024	2025.12	2026.2
전자제품 및 컴퓨터	87,965	107,053	150,696(+40.7)	29,868(+48.3)
기계/플랜트 및 부품	41,579	48,887	61,026(+24.8)	9,955(+27.9)
각종 전화기 및 부품	13,016	14,905	15,198(+1.9)	2,308(+9.5)
의류(원단)	10,425	12,583	11,212(-10.9)	1,713(-1.1)
플라스틱 원료	9,755	11,780	12,531(+6.3)	1,875(-3.1)
각종 철강	8,749	10,403	11,258(+8.2)	1,555(-7.5)
기타 비금속	7,726	8,286	8,113(+4.8)	1,295(+8.3)
플라스틱 제품	7,626	9,554	11,373(+18.9)	2,014(+21.0)
화학제품	7,605	7,735	10,870(+22.8)	1,243(+10.7)
화학물질	7,508	8,853	9,781(+21.9)	1,735(+27.0)
기타	124,419	140,724	153,948	25,779
합계	326,373	380,763	455,006	79,340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22	2023	2024	2025	2026.2
1	미 국	109,388	97,020	119,501	153,178	23,842
2	중 국	57,702	61,207	61,211	70,453	11,026
3	한 국	24,293	23,498	25,619	28,943	5,119
4	일 본	24,232	23,314	24,608	26,766	4,452
5	홍 콩	10,936	9,631	12,423	17,557	2,432
6	네덜란드	10,430	10,241	12,993	13,478	2,240
7	독 일	8,968	7,400	7,934	9,533	1,744
8	인 도	7,961	8,498	9,064	10,351	1,845
9	태 국	7,476	7,192	7,782	8,796	1,608
10	영 국	6,065	6,345	7,543	8,392	1,387
	기 타	103,853	100,325	116,853	127,612	20,697
	합 계	371,304	354,671	405,531	475,059	76,392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22	2023	2024	2025	2026.2
1	중 국	117,866	110,644	114,020	186,034	31,874
2	한 국	62,088	52,511	55,925	60,544	11,636
3	대 만	22,631	18,421	22,741	33,026	6,256
4	일 본	23,373	21,638	21,588	24,677	4,215
5	미 국	14,470	13,822	15,102	19,287	3,360
6	태 국	14,092	11,797	12,447	13,281	2,171
7	오스트레일리아	10,144	8,533	7,592	7,189	1,281
8	말레이시아	9,124	7,809	9,133	11,004	1,944
9	인도네시아	9,641	8,728	10,527	11,519	1,852
10	인 도	7,086	5,864	5,829	6,112	1,159
	기 타	68,386	66,606	105,859	82,333	13,592
	합 계	358,901	326,373	380,763	455,006	79,340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한-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 US\$백만, 증감율%)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2
수출	60,972(+7.5)	53,479(-12.3)	58,321(+9.1)	62,775(+7.6)	12,317(+35.5)
수입	26,726(+11.5)	25,941(-2.9)	28,440(+9.6)	31,774(+11.7)	5,986(+23.9)
무역수지	34,246	27,550	29,880	31,000	6,331

자료원: KITA

한국의 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목명	2022	2023	2024	2025	2026.2
반도체	16,240(15.8)	12,729(-21.6)	18,039(+41.7)	24,656(+36.6)	6,181(+78.0)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2,527(4.0)	12,350(-1.4)	11,227(-9.1)	10,325(-8.0)	1,648(+28.4)
석유제품	3,733(222.3)	3,327(-10.8)	2,731(-17.7)	2,156(-21.1)	421(+16.8)
무선통신기기	2,581(6.9)	2,001(-22.5)	2,333(+16.8)	2,174(-6.9)	323(-12.5)
합성수지	2,358(-29.2)	2,166(-8.1)	2,511(+15.9)	2,253(-10.3)	207(+6.9)
기구 부품	2,194(-8.8)	1,861(-15.1)	1,772(-4.8)	1,814(+2.3)	298(+6.5)
플라스틱 제품	1,069(-15.6)	887(-17.0)	994(+12.0)	1,127(+13.4)	147(-6.1)
철강판	1,067(-9.2)	1,021(-4.2)	1,055(+3.4)	1,081(+2.4)	167(+5.0)
기타기계류	815(13.6)	734(-9.9)	593(-19.1)	623(+5.0)	84(+7.0)
계측제어분석기	793(-17.1)	801(+1.0)	664(-17.0)	675(+1.4)	112(+28.9)
기타	17,242	15,612	16,402	15,883	2,729
합계	60,972(+7.5)	53,489(-12.3)	58,321(+9.1)	62,767(+7.6)	12,317(+35.5)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한국의 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목명	2022	2023	2024	2025	2026.2
무선통신기기	5,986(7.3)	4,543(-24.1)	4,678(+3.0)	4,911(+5.0)	1,213(+87.4)
의류	3,840(13.2)	3,542(-7.7)	3,593(+1.4)	3,325(-7.5)	589(-7.3)
컴퓨터	1,948(19.1)	2,075(+6.6)	2,383(+14.9)	2,988(+25.3)	673(+32.3)
반도체	1,250(27.2)	1,252(+0.1)	1,221(-2.5)	1,160(-5.0)	213(-8.8)
산업용 전기기기	970(33.8)	1,396(+44.0)	1,699(+21.7)	2,029(+19.4)	354(+27.7)
신변잡화	942(24.8)	722(-23.3)	681(-5.7)	579(-15.1)	80(-29.7)
목재류	787(5.0)	2,053(+160.9)	2,976(+45.0)	5,080(+70.7)	969(+49.9)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783(-10.5)	657(-15.9)	598(-9.1)	683(+14.2)	79(+59.5)
기구부품	654(4.8)	571(-12.7)	654(-14.6)	763(+16.5)	130(+19.5)
영상기기	441(3.6)	409(-7.2)	414(+1.2)	406(-2.0)	60(+5.3)
기타	9,103	8,718	9,543	9,850	1,626
합계	26,726(11.5)	25,938(-2.9)	28,440(+9.6)	31,774(+11.7)	5,986(+23.9)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 한/베 통계 집계 기준이 달라, 수치가 다소 차이남

2025~2026년 주요 경제지표

구분	시기	단위	국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GDP증가율	2025년(연간)	%	8.02	5.11	4.8	4.9	2.4	4.4	
	2025년 3Q	%	8.23	5.04	4.3	5.2	1.2	4.0	
	2025년 4Q	%	8.46	5.39	5.7	5.7	2.5	3.0	
생산	산업생산 (증가율 또는 지수)	2025년(연간)	-	9.2	160.3	100.0	136.9	97.23	1.2
		2025년 12월	-	10.1	168.9	109.5	142.6	95.05	1.7
		2026년 1월	-	19.4	N/A	114.9	143.5	101.58	△1.4
	구매관리자지수 (PMI)	2025년(연간)	-	53.0	N/A	N/A	49.5	52.7	50.5
		2025년 12월	-	53.0	51.2	50.3	50.1	57.4	50.2
		2026년 1월	-	52.5	52.6	50.5	50.2	52.7	52.9
소비	소비자동향지수	2025년(연간)	-	N/A	N/A	100.9	136.0	N/A	N/A
		2025년 12월	-	N/A	123.5	101.7	N/A	N/A	N/A
		2026년 1월	-	N/A	127.0	102.2	N/A	N/A	N/A
	소매판매	2025년(연간)	-	9.2	N/A	100.0	187.2	28.99	1.2
		2025년 12월	-	9.8	3.5	112.5	192.9	46.86	1.5
		2026년 1월	-	9.3	5.7	106.0	191.7	N/A	2.1
	소비자물가 (증가율 또는 지수)	2025년(연간)	%	3.31	N/A	0.9	1.4	N/A	1.8
		2025년 12월	%	3.48	2.92	1.2	1.6	N/A	1.5
		2026년 1월	%	2.21	3.55	1.4	1.6	N/A	1.8
투자	고정자산투자	2025년(연간)	%	N/A	N/A	N/A	N/A	N/A	N/A
		2025년 12월	%	47.3	N/A	N/A	N/A	N/A	N/A
		2026년 1월	%	25.8	N/A	N/A	N/A	N/A	N/A
고용	실업률	2025년(연간)	%	N/A	N/A	2.0	3.0	0.81	4.2
		2025년 3Q	%	2.21	N/A	2.0	3.0	0.73	4.4
		2025년 4Q	%	N/A	N/A	2.0	2.9	0.71	5.8
무역	수출증가율	2025년(연간)	%	17.0	6.15	9.6	6.5	12.93	12.4
		2025년 12월	%	23.9	11.64	10.6	10.4	16.81	23.3
		2026년 1월	%	29.7	N/A	30.4	19.6	24.44	7.9
	수입증가율	2025년(연간)	%	19.4	2.83	7.7	6.2	12.90	5.0
		2025년 12월	%	23.7	10.81	14.2	12.0	18.84	7.1
		2026년 1월	%	49.2	3.39	16.6	5.3	29.35	△3.1

[자료원]

- (베트남) 베트남 통계청, 월드뱅크(싱가포르) 싱가포르 통계청(DOS), The Straits Times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CEIC, Moody's, Trading economics, 인도네시아 통계청, Global Trade Atlas 등
- (싱가포르) 싱가포르 통계청(DOS), The Straits Times
- (말레이시아) Central Bank of Malaysia,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MIER, S&P
- (태국) 산업경제실(OIE), 태국중앙은행(BOT), 태국상공회의소대학교(UTCC), 태국상무부(MOC), 태국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
- (필리핀) Trading Economics, YoY, Investing.com, IHS Markit, PSA, Moody's Analytics, Unemployment rate 전망치는 *표시

2026 싱가포르 빅데이터 및 AI 전시회 (Tech Week Singapore 2026)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안내

KOTRA와 한국무역협회는 2026년 9월 29일 ~ 9월 30일 (2일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2026 싱가포르 빅데이터 및 AI 전시회(Tech Week Singapore 2026-Big Data & AI World)' 한국관 참가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유의사항)

- 국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6조 2항에 따라, 참가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외 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참가비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음
- 국고 및 지방비 등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KOTRA가 지원한 국고지원금 전액 환불 및 향후 사업참여 제한과 제재부가금이 발생할 수 있음

1. 전시회 개요 및 특징

- 전시회명 : 2026 싱가포르 빅데이터 및 AI 전시회
(Tech Week Singapore 2026-Big Data & AI world)
- 개최기간 : 2026. 9. 29.(화요일) ~ 9. 30.(수요일) (2일간)
- 개최장소 : Marina Bay Sands Expo and Convention Centre, Singapore
- 전시품목 : AI·빅데이터·클라우드·사이버보안·데이터센터 등 IT 인프라 및 플랫폼 솔루션 등
- 주최사명 : CloserStill Media Ltd.
- 개최주기 : 매년
- 홈페이지 : <https://www.singaporetechnologyweek.com/>

2. 한국관 참가개요

- 모집규모 : 10개사 내외
- 한국관 면적 : 99㎡
- 부스 신청단위 : 기본 1개 부스 9㎡
- 한국관 위치 : Level 5



3. 참가신청 및 참가비 납부

□ 참가 신청

- 신청기간 : 2026. 3. 30(월) ~ 4. 20(월) 18시까지
- 신청방법 : **아래 3가지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최종 신청 완료로 간주**
 - (1) 온라인 신청 (하기 사이트)
 - (2) 신청서류 이메일 제출 (반드시 아래 이메일 2곳으로 모두 송부)
 - (3) 참가 신청금 납부

□ 신청방법 세부 안내

① 온라인 신청

- (1) KOTRA 무역투자24(www.kotra.or.kr) 또는 글로벌전시플랫폼(www.gep.or.kr) 접속
- (2) 2026 싱가포르 빅데이터 및 AI 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 확인
- (3) 공고문 하단 [신청하기] 버튼 클릭
- (4)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유의사항)

- 글로벌전시플랫폼(GEP) 참가 신청 시 KOTRA 사업 통합신청 페이지로 이동됨
- GEP에서 연결 오류 발생 시 KOTRA 무역투자24(www.kotra.or.kr) 사업신청 페이지에서 [2026 싱가포르 빅데이터 및 AI 전시회] 해당 사업명을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음

② 신청서류 이메일 제출

- 온라인 참가신청 시 첨부한 모든 서류를 아래 이메일로 제출 (**반드시 두 곳 모두 제출**)
- 제출처 : (1) 한국무역협회 MICE기획실 양용철 부장, yc.yang@kita.or.kr
(2) (KOTRA 해외전시팀) 최지원 대리, jwchoi@kotra.or.kr
- 제출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 (2) 한국관 참가 신청서
 - (3) 전시품목 상세서
 - (4) 신청기업의 카탈로그 및 브로셔(국·영문)
 - (5) 기업경쟁력 증빙 서류
 - (6) 정책우대 가점항목 증빙 서류

③ 참가 신청금 납부

- * 신청 마감일 전까지 신청금을 미납 시 불참으로 간주하여 최종신청 처리 불가
(**총 참가비가 아닌 참가 신청금 700만원을 한국무역협회로 선납부 必**)

□ 참가비 납부

- 총 참가비 : 700만원(예정) (1부스, 9m² 기준)
 - 참가비 내역 : (1) 임차료, (2) 장치비
 - 해외 체재비, 여행경비, 개별 장치 옵션, 통관 시 관세 등은 각 기업에서 자체 부담
- 납부방법 : 신청금은 온라인 신청과 동시에 신청 마감일 전까지 입금 요망
 - 참가신청금 : 700만원 / 2026년 4월 20일 18시까지, 한국무역협회 법인계좌로 납부
 - 잔금 : 미정 / 참가업체 확정 후 통보
- 입금처 : **우리은행 1005-604-889023** / 예금주 : 한국무역협회

※ (유의사항)

- 총 참가비는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기업 납부 금액이며, 국고지원율 및 환율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확정 잔금과 납부일은 추후 통보이며 주최측, 환율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 통보 후 참가 취소 시 참가 신청금 환불 불가
- 미선정 시 참가 신청금 환불 조치

□ 선정 및 통보

- 참가기업 선정 : 해외전시회 지원 지침 內 선정기준표 의거 평가 (첨부 참조)
 - 평가항목 : 수출실적, 기업경쟁력, 전시적합성 등에 대한 종합 평가
 - 선발기준 : 고득점 순 지원기업 규모만큼 선발
- 선정통보 : 참가기업 모집 마감 후 21일 이내 선정결과 통보
 - * 모집현황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통보는 지연될 수 있음

※ (유의사항) '해외전시회 지원 지침 제 1장 제9조 5항 및 제 2장 제21조 2항'에 의거,

- 단체참가 해외전시회 참가기업에 대한 지원한도는 연 5회 이내로 제한
- 해외전시회 참가기업은 동일 전시회에 참가할 수 있는 횟수를 연속 4회 이내로 제한

* 참여제한 대상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의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된 기업은 buyKOREA 온라인 상품정보 등록/갱신
 - 전시회에 출품 예정인 제품 최소 2개 이상 등록
 - 기존에 등록된 제품이 있는 경우, 최소 2개 이상 최신화 갱신
 - * buyKOREA에 상품 미등록 시, 무역관을 통한 해외마케팅 지원 불가
 - * buyKOREA 상품등록 절차 문의처 : 1661-7601

4. KOTRA 지원 사항

□ 국고지원

① 참가비 포함항목

- 부스임차료와 장치비의 **70%** 이내 국고지원 예정

(1) 장치 기본제공 범위 및 내역

(2) 조명, 기본벽체, 바닥카펫, 회사명 사인보드, 선반, 전시대, 상담용 탁자 및 의자, 안내데스크 및 의자 등

- 한국관 디렉토리 제작비 100% 국고지원

② 운송비 1CBM 편도 100%

- 한국관 공식 선정 운송사를 통한 1부스 당 1CBM 한도

- 국내 반출 시 (서울 → 전시장까지) 해상운송 기준

③ 한국관 디렉토리 제작비 100%

□ 행정지원

○ 한국관 부스임차, 전시회 참가에 따른 주최측 서류제출 등

○ 한국관 공식 협력사 선정(장치사, 여행사)

* 한국관 참가기업은 공식 선정 장치사를 이용하여야 함

* 여행사는 필수 이용 사항이 아님

□ 마케팅 및 홍보

○ 사전 마케팅 활용을 위한 관심바이어 리스트 제공

* 수령 후 업체가 직접 바이어에게 컨택

○ 사전 통역원 섭외(통역원 단가는 국가별 상이함), 현지 한국관 홍보 등

□ 전시회 현장 지원

○ 현지 간담회 개최(현지 상황에 따라 취소 및 간소화 가능)

○ 전시기간 참가기업 상담지원

5. 참가기업 자체 부담 경비

- 출장자 여행경비 및 체재비
- 운송비 (국고지원은 부스 당 1CBM 편도 1회 지원 한도. 이외 운송비 기업 부담)
- 기본 장치 지원 사항 이외의 추가 장치비용
- 통역원 채용 시 통역비(현장에서 참가기업이 통역원에게 직접 지불)
- 기타 현지 출입국을 위한 비자발급, 격리비용(필요시), 현지 이동비용 등

6. 모집 완료 후 향후 일정

- ① 모집 완료 후 21일 이내 “KOTRA 참가업체 선정기준”에 의거 평가 후 결과 통보
 - 미선정 기업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참가 신청금 환불 처리
 - 단, 최종 선정통보 이후 기업이 참가취소 시 납부한 참가 신청금은 환불 불가
- ② 최종 참가비 납부(신청 시 납부한 참가 신청금을 제외한 잔액 납부)
 - * 공지된 총 참가비는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기업 납부 금액임
 - * 참가비는 반드시 기한 내 납부되어야 하며 미납 시 전시회 참가가 제한될 수 있음
- ③ 선정발표 이후, 사전 설명회 개최 전까지 buyKOREA에 상품 정보를 등록
 - * 전시회에 출품 예정인 상품 ‘최소 2개 이상 등록/갱신’ 필수
- ④ 선정기업 대상 사전 설명회 개최 : 참가업체 부스 추천, 한국관 일정 및 추진 내용 (장치, 출장단 패키지 등) 안내 등

7. 문의처

- 전시회 관련 문의
(한국무역협회 MICE기획실) 양용철 부장 : 02-6000-2306, yc.yang@kita.or.kr
(KOTRA 해외전시팀) 최지원 대리 : 02-3460-7285, jwchoi@kotra.or.kr
- GEP 신청 오류 문의
(KOTRA 해외전시팀) 구본준 사원 : 02-3460-7299, kbj5941@kotra.or.kr
- KOTRA 무역투자 24사이트 회원가입·로그인 오류 문의
KOTRA 고객전략팀 : 1600-7119

원문 링크 



kotra 베트남 비즈니스 NEWS



편집 및 제작: KOTRA 베트남 비즈니스 협력센터

Phone: +84-24-3946-0511 / Email: hanjisoo@kotra.or.kr <저작권자 KOTRA>